

광주일보·중기중앙회 '광주·전남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원가절감·판로확대로 위기 극복

극심한 경기침체 속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과의 경제양극화 역시 심화되는 것은 물론,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각자 생존 전략을 모색해왔던 중소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해가는데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발전해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창간 71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와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15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호 광주일보 편집총괄국장을 좌장으로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과장,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 과장, 조경문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갑은 여수오천산단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관련 현안과 정책을 되짚어봤다.



광주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개최한 '광주·전남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플랫폼이라고 하던데.

▲이창호 본부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기계, 가구, 아스팔트콘크리트, 인쇄 등 업종별 중소기업 3000여개사로 구성된 50여개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동 기술개발, 공동 판매·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판로확대 등으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오수미 과장=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이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는 고용불안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 경제모델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 특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 공동사업 사례가 있다면.

▲조경문 이사장=공동사업의 유형으로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단체표준', '공동시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골목상권에 있는 수퍼마켓들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했다. 자본력이 부족

광주·전남,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3000여곳 50여개 협동조합 운영 집적단지 조성·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사업 추진...비용절감 등 효과 인력 부족에 신규 사업 기획·추진 어려워...지원분야·예산 확대 절실

한 개별 수퍼마켓을 대신해 대기업 제조사와 가격협상·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지역 소상공인(수퍼마켓)은 개인이 구매할 때보다 원가를 크게 절감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 효과는.

▲이창호 본부장=국가 주도의 대기업 집중형 산업육성 전략이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양극화 등 한계에 직면하면서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정책보다는 협동조합과 같은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조직화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경로이자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경준 회장=임기 기간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10곳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은 규모의 한계 극복 및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기 힘든 기술개발이나 공동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종래 청장=대만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은 정책효과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중소기업에 균등한 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 및 정책역량의 한계로 인한 각종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현황은?

▲조종래 청장=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해 3월 '제3차(2022-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총 628억원 규모로,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자금(정책자금)과 성과공유형 공동기술개발사업, 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윤미라 과장=현재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도 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조합간 공동구매 거래와 기술개발, 마케팅, 교육 등 지원을 펴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0년부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조경문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신규 공동사업 개발과 기획,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현재 광주·전남 조합 중 직원 2명 이하 조합이 60% 상으로, 인력이 부족해 신규 공동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임경준 회장=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대 역시 필수적이다.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이 필수적인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동사업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조합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

▲김갑은 이사장=지역과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공동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완도에는 수산물 산지저점유통센터가 설립돼 완도에서 생산되는 다시마, 멸치, 김 등 건어물의 유통단계를 줄여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수오천산단은 지역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40여개사가 입주한 수산식품 특화단

지다. 조합에서는 산내 내 직접 유통판매 가능한 공동전시판매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인데, 지역과 업종 특성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조종래 청장=중기부에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형 공동사업자금'을 내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공동 R&D, 시범연구, 공동시설 구축, 탄소중립·ESG 공동 대응 등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중기조합 협동화자금 300억원을 통해 조합 협업화 촉진 및 시설자금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 중심 조합원사 대상 공동사업 운영 등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공동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수미 과장=앞으로 타·도 지원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효과적인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확대하겠다. 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 공동사업이 공동구매와 판매 등 전통적 공동사업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기술개발·생산·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자체의 자생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윤미라 과장=광주시는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공동사업 활성화 사업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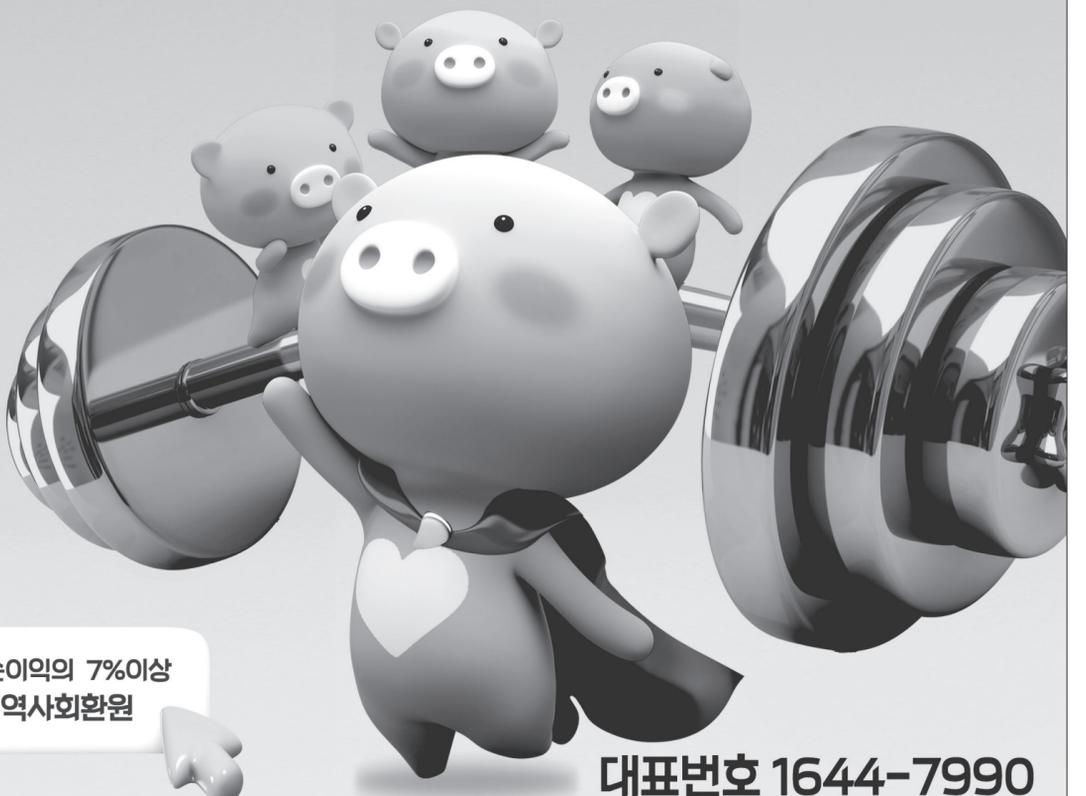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